



분류종인 백신 들어보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코로나19 백신 원제 제조실에서 분류종인 백신을 들어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급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새해 첫 의정활동 본격화

도의회, 22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안' 포함 안건 23건 처리 첫 날 도정 방향 청취·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진행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첫 임시회(제378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9건, 동의·승인안 1건, 구성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2일 1차 본회의는 전북도와 전북도 교육청의 신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 청취와 더불어인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진행된다. 또한, 도민 복리 증진 및 각종 현안에 대해 황의택(무주)·김명지(전주8)·김종식(군산2)·박용근(장수)·오광근(전주2)·강용구(남원2)·나인권(김제2)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어, 23일부터 31일까지 삼일위원회별 도청 및 도교육청 실·국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뒤 오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된다. 송지용 의장은 "일상의 불편을 참고 생애위험에도 거리두기와 방역에 협조해주시는 도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전북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가습기살균제 인체 피해 판결 결과 부정 납득 어렵다"

민주 윤준병 의원,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관계자 1심 무죄 관련 "내 몸이 증거" 외치는 피해자들 위해 환경부가 적극 대응해야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라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비롯해 총 1,413명(단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라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결과편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송지용의장, 코로나환자 이송 소방공무원 위문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20일 코로나환자 이송을 전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문하고, 처우 및 업무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완산소방서 서부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소방본부 감염병구급대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 청취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구급대 36개대를 조직하고,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해외입국자, 검체 이송 등을 전담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과 생활치료센터에도 소방공무원을 파견해 해외입국자 격리과 환자간호를 지원하고 있다.



송 의장은 "소방본부 감염병구급대가 확진 및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이송해줘 코로나19환자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산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덕분에 도민들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휴식과 재충전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업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나기학 도의원, 군산서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군산)은 약취와 분진 대기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군산 국가산업단지(1, 2)와 일반산업단지 배출사업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는 등 환경민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오식도동을 비롯한 산업단지 일원은 약취와 대기오염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오식도동 일대의 주민들은 약취와 대기오염 피해를 호소해왔다. 나 의원은 현장에서 전북도 및 군산시 관계자로부터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새해 주요 업무 계획

일자리 창출부터 민생경제 회복 불씨 키운다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는 20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신년 브리핑에서 ▲지역특화, 세대별 촘촘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도민 삶의 안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공유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산업 분야 기업 유치, 금융산업 육성 분야 등 다양한 지역경제 부양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키워 전북경제의 안정적 재도약을 이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 세대별 촘촘하고 일한 일자리 창출 전북도의 2021년 일자리 정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도민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공공 일자리 확대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력 강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본격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도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확대하기 위해 8,25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97,606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2월 까지 58,000명이 조기 채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 일자리 모델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올해 510명을 본격 채용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익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일자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고용유지·고용회복·고용확대로 이어지는 단계별 일자리 활성화 전략은 고용유지를 위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4억원)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3만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내일채움공제 221명 등 사업이 진행된다.

고용회복 측면으로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취약계층, 코로나방역 일자리 750명 외), 전북 상생형일자리가 추진되며, 고용확대를 위해 전국 최대규모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185억원, 2,000개 일자리, 더좋은 일자리기금 24억원 펀드시임)이 전개된다.

세대별 일자리도 촘촘하게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에 449억원, 2,290명의 디지털·비대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친화기업 50개를 발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고용불안 해소 위해 고용유지 지원 등에 집중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도민 삶의 안정화 힘쓰기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미래성장산업 기업유치도

신년은 취업지원 220명, 사회적현황지원 350명, 경력형 236명 등 고용지원이 강화되고, 노인 일자리도 5만4,870명에서 5만9,5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소상공인 지원, 도민 삶의 안정화

도는 올해 민생경제 반등과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도민 삶의 안정화에 힘쓴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와 성장 단계별 성장사다리 지원을 위해 236개사에 161억 원을 투입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1,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나아가,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로 개척 확대와 수출역량을 높인다.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28억원, 해외통상거점센터(베트남·인도) 6억원,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0억원 등 수출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성장지원 및 안정화가 기대된다.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마케팅, 소풍몰입점, 라이브커머스 홍보 등 업종별 온라인 전환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온라인소매 150개소, 스마트상점 100개소, 스마트슈퍼 10개소를 보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매출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회와 자영업자 금융비용경감을 위해 각각 50억원과 600억원을 지원하고, 이차보전 2%와 연계한다.

▲지속가능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공유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중점을 둔다.

△정착자금 지원(기금조성 5억원) △지역자산화 이차보전 2개소 △시군 중간지원조직 5개소 지원 △민

관 협업체계 구축 2개소 등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촉진한다.

더불어, 청년혁신가 250명, 마을기업 사무장 35명, 사회적기업가 30팀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사업개발 7억원 △성장기업육성 2.5억원 △마을기업 고도화·마케팅 11억원 △전북 사회적경제 박람회 1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사회적경제 집적공간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280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된다. 지역 내 유휴 공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도 20억 원을 지원한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공유실함실, 시범마을이 추진된다.

▲전북도 미래성장분야 확충, 지속성장 견인

도는 미래성장산업 기업유치와 글로벌 자선운용 혁신 금융도시 기반을 구축해 전북경제를 지속성장 견인할 미래 먹거리 확보전략을 펼친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신소재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SK건설사업 등 신속한 투자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도 주력산업과 연계한 SK 계열사 추가 유치를 실시한다.

또한,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국 최대 확보성과를 유지해 투자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도모하면서, '도 주력산업의 가치사슬 강화' 연구역량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마케팅, 소풍몰입점, 라이브커머스 홍보 등 업종별 온라인 전환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온라인소매 150개소, 스마트상점 100개소, 스마트슈퍼 10개소를 보급한다.

특히,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인프라인 전북금융센터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건립방식을 변경하고, △신보이사회 의견수렴 △타당성 용역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수렴으로 차질 없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하반기 구축 완료(국비 46억원) △금융전문인력 245명 양성 △IT금융학과 신설도 추진되며, 지니포털 등 국제 금융컨퍼런스 확대를 금융도시 위상제고 노력도 지속된다. /유호상 기자

'익산 마한문화 특징, 국가 정체성의 문화 원형'

전북연구원 '익산의 가치 재창조 세미나' ... 조선 후기 실학자가 인식한 '마한정통론' 바탕 콘텐츠 확보·미륵사지 금제사리봉안기 근거로 익산 유치 제기위한 인과 관계 보완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김성기)이 '익산의 가치 재창조 세미나'를 익산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20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연구원 주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 익산시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문이화(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정민(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병남(전북대 사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문이화 선임연구원은 문헌, 고지도에서 보이는 과거 익산 사람들이 인식한 마한과 현재의 마한에 대한 인식을 밝히며, 마한문화유산의 현황으로 신동리, 계문동, 구평리, 영등동, 송학동, 장신리 유적지와 발굴품의 특징을 소개했다.

문 선임연구원은 익산 마한문화의 특징을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화 원형으로 규정하고, 10가지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박정민 부연구위원은 "전북의 실학자 강후진의 재조명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선후기 실학자가 인식한 마한정통론을 바탕으로 마한 콘텐츠를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738년 강후진이 익산 마한 유적지를 답사하고 기록한 유금마성기(遊金馬城記)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익산이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역사성을 되짚고, 18세기 익산 복원이 디지털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병남 교수는 "2009년 미륵사지 석탑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 주목해 사리장엄구를 통해 부족한 백제 문헌기록이 보완됐으나, 전통적으로 서풍의 부인으로 생각된 선화공주와는 다른 존재인 사택왕후가 언급돼 이 부분의 정점 극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리장엄구와 전북기록원 유적의 가능성을 이번 세미나에서 타진"하며 "금제사리봉안기를 근거로 익산 유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나 논리 전개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완규(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좌장의 주제 아래 최홍선(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 이규철(한국고대

강사), 이다은(원광대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기영 전북도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역사는 시간을 이겨내고, 기억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고대 마한과 백제의 중심지 익산이 품은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익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 익산의 자손들에게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더 많은 정책들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기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익산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높아지고, 익산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이 발굴돼 이를 활용한 문화적 도시 재생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발의돼 시행을 앞둔 '역사문화관광비밀'이 익산의 지역 발전에 한층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